

임팩트가 필요한 시대, 2021 사회혁신 분야 전망

코로나 이후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연동된 ESG 분야 글로벌 이슈를 살펴본다.

참고 포브스, MSCI, SB, 스탠퍼드 PA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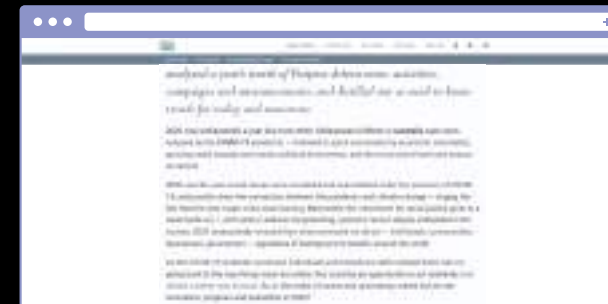
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1. Forbes



4. PACS



3. SB(Sustainable Brands)

2020년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2021년은 어떨까. 국내외 리서치기관은 공통적으로 "2021년 ESG의 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SG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ESG 경영'이라고 쓴 기사도 자주 보이는데, ESG·CSR·사회공헌은 관점과 전략 면에서 각각 다르다. CSR과 사회공헌이 사회적 측면이 강조됐다면, ESG는 E(Environmental·환경), S(Social·사회), G(Governance·지배구조)라는 비재무지표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가깝다. 기후변화 대처를 잘하는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지(이상 E), 직원과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는지,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지(이상 S), 주주권리를 보호하는지,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이고 다양한지(이상 G) 등을 수십 개의 지표로 삼아 평가한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기업에 낮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필자는 <포브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SB(Sustainable Brands)>, <스탠퍼드 PACS> 등에서 나온 2021년 ESG 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1
www.forbes.com/sites/jonquilhackenberg/2020/12/10/redefining-normal-the-top-5-esg-trends-for-2021/?sh=405eb39614e2

2
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2021-esg-trends-to-watch

3
www.sustainablebrands.com/read/walking-the-talk/2020-s-top-10-trends-in-purpose-and-what-they-could-mean-for-you-in-2021

4
www.pacscenter.stanford.edu/publication/philanthropy-and-digital-civil-society-blueprint-2021/

1.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

ESG 중 향후 가장 가파른 물살을 탈 분야는 E(환경)분야, 특히 기후변화다. 세계 최대 증권 관련 지수 산출기관인 MSCI가 8,90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해보니, 현재 상태로는 지구 온도가 3.6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드러났다. MSCI는 각 상승온도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놓았는데, 3도 상승할 경우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이 15%로 줄어든다.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당장 해수면 상승 위험으로 인해 미국 플로리다 고급주택가격은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가격 또한 2016년 대비 7.6%나 하락했다. 보험산업은 위험관리에 관한 리스크를 가장 먼저 캐치하는데, 글로벌 손해보험사 로이드는 최근 10년간 기후변화 손해액이 2,000억 달러(240조 원)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⁵ 기후변화가 실물경제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예측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앞으로 'RE(Renewable Energy)100'⁶과 같은 선언을 포함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한층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50년까지 실질적 배출 총량을 아예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탄소 네거티브'를 밝혔다. 100% 친환경에너지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센터인 '프로젝트 나틱(Project Natick)' 계획을 2015년부터 추진 중인데, 실증작업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초로 해저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진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는 '자율'에서 '의무'로 점점 바뀌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2021년 3월 EU(유럽연합)는 비재무정보 의무공시(NFRD, Non-financing Reporting Directive)⁷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2. 순환 경제

SK 최태원 회장이 직원들에게 권유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바다(A plastic ocean)'를 보면, 문명의 역습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였던 플라스틱은 이제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플라스틱 퇴출은 향후 전 세계의 화두가 될 것이다. EU는 2020년 3월 그린딜의 일환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총 3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1년에는 재활용, 재사용 포장재 요건이 강화되고, 2022년에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EU에서는 빨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출시가 금지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90%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생산자 책임을 한층 높였다.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졌다. 버거킹은 2021년 하반기 뉴욕, 포틀랜드, 오리건 등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다. 로레알의 화장품 용기, 애플루트 양주병 등 상상하기 힘든 용기들이

종이, 식물성섭유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패키징에 바이오성분 함유량을 최소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할 계획이라 순환경제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대 보험사는 2020년 집중호우로 7,036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이는 전년(443대)에 비해 무려 1,488.3% 늘어난 수치다. 손해액은 24억 원에서 707억 원으로, 2,845.8% 증가했다.

6 'RE(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10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약속으로, 현재 264대 글로벌 대기업이 가입해 있는데 SK그룹 8개 관계사가 한국 최초로 가입해 화제가 됐다.

7 EU(유럽연합)는 2014년 '비재무 의무공시'(NFRD Non-financing Reporting Directive)를 시작해, 2018년 이를 적용했다.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나 공익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3. 공급망 이슈

지난 11월 말 스위스에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국민투표가 열렸다.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침해에 관한 실사 의무화에 관한 찬반투표였다. 12만 명의 국민지지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국민 과반수 이상의 표(50.7%)를 얻었으나 주(州)의 과반수를 못 넘겨 통과되지 못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책임감 있게 원료를 소싱(Sourcing)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니켈의 경우 환경오염 이슈가 지속되면서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0년 1월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광물에서 니켈만을 분리해 남은 찌꺼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니켈 생산에 상당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볼보 등 친환경 자동차 기업이 오히려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며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식품산업에서는 콩과 팥유(야자나무기름) 등을 채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삼림을 훼손하거나 불태우는 등의 '삼림 벌채(Deforestation)' 이슈가 뜨겁다. 특히 전 세계 3,000개 자산운용사 및 투자기관이 가입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이 "공급망 인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어, 변화가 예고된다.



4.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BlackLivesMatter' 움직임은 거셌다. 흑인, 여성, 성소수자 등 조직 내 다양성(Diversity)을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2021년 더 커질 조짐이다. 2020년 테스코는 영국 최초로 흑인들의 피부색에 맞는 반창고(Bandage)를 출시해 화제가 됐다. 백색 금발머리로 유명한 바비인형 또한 흑인, 대머리, 장애인 바비인형까지 출시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현재 1만6000명 직원 중 5%에 불과한 흑인 비율을 2024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기업 내 이사회에까지 다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스닥은 3,000개가 넘는 상장사들에게 1년 내에 이사회 다양성을 공시하고, 여성이사 1명과 소수인종 혹은 성소수자 1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어드바이저(SSGA)는 2021년부터 투자대상 기업의 '성별(Gender)&다양성(Diversity)'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기업에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불평하기엔, 사회의 움직임이 빠르고 거세다. ESG 대열에서 이미 우리 기업이 후발 주자여서 2021년엔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글 박란희 지속가능미디어 <임팩트온> 대표
지속가능 미디어 스타트업 '임팩트온' 대표 겸 편집장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에서 사회공헌, 기부, 임팩트 전문 글을 오래 써왔으며, 2020년 7월 지속가능경영 및 ESG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미디어를 창간했다. '워킹맘 생존육아', '사회적경제 참 좋다'(공저), '대한민국 임팩트기부 교과서' 등의 책을 펴냈다. www.impacton.net